ELIO'S LITTLE DISCOVERIES

The Door That Stuck

뻑뻑해진 문 · wet과 dry 비교



7세 · Day 040 · 함께 읽기 · 4장면



Bori touched the sill. “Wet here too.” The top of the door was dry and smooth.



“Wood drinks water and swells,” said Mum. “Wet wood is bigger than dry wood.”



They left the door alone. Wind and sun dried the wet sill all afternoon.



After supper, Elio pulled again. The door swung open. “Dry wood shrinks,” said Bori.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젖은 문턱과 나무 문을 봐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무엇을 먼저 살필지 이야기해 봐요.

함께 읽을 때

문 아래쪽의 어두운 색과 문턱의 물기를 그림에서 찾아봐요. 엘리오가 문을 세게 당기지 않고 살피는 점을 짚어 줘요.

생각 나누기

어제는 열리던 문이 오늘은 왜 열리지 않았나요? 문을 억지로 당기지 않고 기다린 까닭을 함께 말해 봐요.

생활에서

집 문이나 나무젓가락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만져 보고 이야기해 봐요. 실제로 문을 힘으로 열어 보는 놀이는 하지 않아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